

■ 괴운(槐雲) 칼럼



한국인 마음에 새겨진 문장들

권 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북아공파 36세)

오늘은 요즘 카톡방에 올라온 강원도 흥천출생으로 서 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를 역임한 우리 안동 권문 권기태 소설가가 선정한 <한국인의 마음에 새 겨진 문장들>이다. 그는 올겨울 어느 날 ‘우리나라 사람이 면 대부분이 알만한 문장 다섯 가지를 고른다면’ 하고 생 각하면서 이 글을 썼다고 한다. 물론 시기별로 달라진다. 광복 후의 ‘광복가(光復歌)’나 전쟁 중의 ‘전우나 잘 자라’ 같은 노래 가사는 그 시절 누구나 불렀던 애창곡이었지만 그레도 지금은 아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애 창곡처럼 ‘한국인들의 마음에 새겨진 문장들’ 57가지를 다 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첫 번째는 윤희동 서시(序詩) 이다. “죽는 날까지 하늘 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를 뽑았다. 왜 이 문장이 우리의 가슴에 그토록 매어리칠까? 그것은 겨레의 아픔과 함께한 윤희동 주라는 시인과 이 시가 지닌 고결한 마음 때문인 것 같다. 크게 보면 기독교 불교, 유교가 공히 지향하는 깨끗한 마 음과 통하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를 뽑았다. 한국인이라면 남녀 없이 이 문장을 좋아한다. 정유재란 때 우리 수군이 궤멸하자 선조는 누명을 쓰고 백의종군하던 충무공 이순신에게 다시금 삼도 수군통제 사를 맡긴다. 하지만 며칠 후에 선조는 “지휘할 수군이 없 다면 권을 도원수를 돕게” 하였다. 하지만 충무공은 아직 열두 척이 있음을 밝히며 “죽을 힘을 다하여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미천한 신(臣)이 아직 죽지 않았으 니 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 읍니다”라 고 보고하였다. 그 결과는 적선 333척을 격파하여 세계 해 전사에서 빛나는 기적을 이룬 명량대첩이었다. 필자는 이

문장을 읽으면 콧등이 시큰해진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한글 최초시가집인 <용비어천가>를 선택했 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니, 꽃 좋고 열 매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니, 내(川)가 되어 바다에 가나니”라는 내용이다. 용비어천가는 가장 아름답고 균형이 있으며 유명한 문장이다. 특히 ‘뿌리 깊 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은 뜻이 깊고 정이 가는 말이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끈기 있고 은근하며 심지가 굳은 마음을 좋아하는 것 같다.

네 번째는 애국가 첫 구절이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 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이다. 이 문장을 모르는 이는 없겠지만 이 노랫말을 지은 분을 아 는 이는 별로 없다. 그레도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 긴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국가를 들어보면 피가 튀고 화 염이 날아가며 영국과 일본은 왕을 찬양한다. 하지만 우 리 애국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 음을 담았다. 얼마나 사랑하면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영원하기를 바랄까.

필자가 꼽은 다섯 번째는 <아리랑>이다. ‘아리랑 아리 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 는 님은 심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우리에게 삶은 아득 한 고갯길을 넘어가는 것, 남이랑(알이랑) 함께 가야지만 가능한 것이라고 이 문장은 말한다.

필자는 “지금 온 세상이 혼동스럽지만 우리가 바르고 깨끗하고 맑고 따뜻한 혼(魂)을 지닐 때 이겨내지 못할 것 은 없다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문장들은 말한다”고 하였 다. 이 글은 쓴 안동 권문 권기태 소설가의 애국심을 다시 생각하며 그가 뽑은 다섯 곡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나도 한번 되새겨 본다.

추밀공파 문충공계 안양공 종중 정기총회 개최

안양공 종중(회장, 권혁상) 정기총회가 3월 23일 11시 성남 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5에 위치한 버섯잔치집에서 개최되 었다.

권혁상 회장을 비롯하여 권오돈 추밀공파종회 회장, 권혁 원 전 안양공 종중 회장, 권순균 안양공 종손, 권오형 회계사, 권영갑 전 수원종친회장, 권혁준 감사 등 20여 명이 참석하 였다.

총회는 2024년도 종무보고, 권혁준 감사의 감사보고, 이사 임명과 감사 선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총회에서는 안양 공 부조묘 및 계단 개보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양공 권반(權攀, 1419~1472, 18世)은 문충공(文忠公) 양 촌(陽村) 권근(權近)의 증손자이자 소한당(所閑堂) 권랍(權 攀)의 동생이다.

한성부윤과 충청도관찰사 등을 지냈다. 후손들은 대대로 지 금의 경기 성남시 금토동(金土洞) 일대에 세거해 왔는데 이곳 은 공의 장자 도사공(都事公) 활(活, 1444~1464)이 21세에 요



권행완 편집국장

절하니 장사할 땅이 없어 장사할 산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세 조가 하사했다 한다.

2025 을사년 태사묘 춘향제 엄숙하게 봉행

안동태사묘관리위원회(위원장 장우진)가 주최하는 “2025 을사년 태사묘(太師廟) 춘향제(春享祭)가 3월 19일(음력 2월 20일) 오전 10시 안동시 태사길(북문동) 태사묘우(太師廟宇)에 서 안동권씨, 안동김씨, 안동장씨 등 삼성(三姓)의 참제원(參祭 員)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奉行)하였다.

이날 안동지방의 기온이 영하 3도의 차가운 날씨에 바람도 많이 불고 있어서 예년에 비해 참제원이 적게 참석하였다. 참 제원 가운데 권오신 좌윤공파회장 등 임원 5명이 경주, 포항 에서 참석하였으며 권정창 대종회 전 제례위원장, 권오의 대 종회 안동사무국장, 김동량 대한노인회 안동시지부장, 권광 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장, 김대일 경북도의회 정책 연구위원장이 참석,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날 태사묘 숭보당(崇報堂) 마루 위에서 권재규 집필자(執 筆者)가 분정례를 시작, 초헌관 장혁표(張赫杓, 전 부산대학교 총장), 아헌관 권혁창(權赫昌, 대종회 제례위원장), 종헌관 김창 한(金昌漢), 집례 장수식(張受植), 축관 권태은(權泰殷), 김광진 (金光鎭), 장무빈(張武彬) 등을 40분에 걸쳐서 집필하였다.

숭보당 마루 위에서 관복(冠服)으로 갈아입은 헌관 및 축관 들은 헌관을 선두로 삼성의 후손들이 뒤를 따라 태사묘우로 이동하였다. 장수식 집례의 창홀(唱喏)에 따라 초헌관, 아헌 관, 종헌관들이 태사묘우에 들어가 엄숙하게 분향(焚香) 헌작 (獻爵)하고 이어서 축관들도 각자 자신들의 시조 위패 앞에서 다 같이 축을 낭독한 후 춘향제를 마치고 숭보당 앞 잔디밭에 서 단체로 기념 촬영을 하였다.

기념 촬영이 끝나고 숭보당 마루위에서 음복례(飲福禮)를 한 후 “2025년도 태사묘 대당회의(大堂會議)를 가졌다.

권순길 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 서 도유사(都有司) 인사, 위원장 인사, 경과보고, 감사보고, 자 산보고, 2024년도 결산보고, 2025년도 예산안, 기타 토의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장혁표 도유사는 인사말에서 “춘향제를 봉 행하기 위해 예행연습을 하거나 동영상상을 찍어 놓아야 할 것

같다”고 농(弄)을 하였는데 춘향제를 봉행하면서 참제원들의 실수가 있어서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장우진 관리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부족한 저가 위원장을 맡 아 열심히 봉사하려고 노력했으나 마음같이 않다”며 “추은 날씨 에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했다. 이어 권순길 사무국장은 작년 5 월 30일 경남향교제단에서 30명이 태사묘를 방문하는 등 19건의 경과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하였다. 김국한 감사 등 감사3명이 감 사보고를, 권 사무국장은 자산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4년 도 결산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기타 토의에서 1990년대 안동태사묘에서 제일 먼저 시행 한 “문화재지킴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최근 충남 보령에서 발상지 표시석을 안동태사묘에 설치해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해왔다고 김광진씨가 보고했다. 이에 따라 발상 지 표시석을 태사묘에 세워도 좋다는 결정을 했다. “문화재지 킴운동”은 회원들이 문화재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각종 문 화재를 보호 관리하는 민간단체운동이다.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1인당 2만원씩 점심 값을 지불 하고 해산하였다. 권영건 보도부장

동아문명의 발전과 한중인문학의 역할

권중달(중앙대 명예교수)

본 기사는 권중달 중앙대 명예교수가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된 제10회 한중 인문학 포럼에서 한국측 대표로 기조 강연한 연설문이다. 인문학으로 세계를 품미하고 있는 갈등과 비극적인 전쟁의 원인을 어떻게 줄이거나 없앨 수 있을까 하 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면 사정상 몇 회에 걸쳐 실는다. <편집자 주>

5. 나오는말: 인간성 회복을 위한 인문학의 역할 (계속)

이러한 분위기의 변화 속에서 모(莫) 멀티 미디어에서 자치통감 강의를 요청해 왔고, 현재까지 5년간 매월 1회씩 진행하고 있습 니다. 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CEO가 매 회 최소 2천 명에서 5천 명에 이릅니다.

또 매월 한 번 ‘권중달 교수의 역사 칼럼’ 이라는 글을 발표하고 있어서 역사 지식과 세상을 보는 눈을 연결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약 10년간 계속하고 있습 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는지, 그 영향이 어떤지 알지 못하지만, 가끔 이 글에 대한 독 자의 긍정적인 댓글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나의 이러한 활동이 폭발적인 인기 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계속한다면 향 후 50년 후에는 아주 많은 사람이 자치통감 을 통해 진정한 인문학적 가치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자와 대중을 지도 하는 한 방법이라 여기며, 작은 힘을 보태고 자 합니다.

네 번째로, 인문학에 대한 추구는 끝이 없 습니다. 요즘 인문학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정년(停年)과 함께 책을 놓아버리는 경우를 봅니다. 하지만 의학의 발달과 환경의 변화 로 인해 정년 후에도 거의 20~30년을 건강 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 20~30년이라는 시간은 왕성하게 활동하였던 젊은 시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정년 이후의 기간은 의무적으 로 강의해야 하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 문에, 재직 시절 연구에 투입했던 시간과 맞 먹는 연구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문학은 단기간에 터득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며, 그 대상도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년 후 20~30년간의 연구는 중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 비록 교수수 30 년간 재직했음에도 당시에는 역사의 전반적

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고 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특정한 일부 분야에만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 난 30여 년간 자치통감과 속자치통감을 역주 하면서 이제야 겨우 동아시아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능력 차이는 있겠지만, 초학 자 시절에는 자기 전공 분야의 전반적인 이 해조차도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년퇴임 후에 본격적인 연구에 몰 입할 수 있고, 그 성과도 기대할 만합니다. 다섯 번째로, 인문학자는 시대를 지도하 는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제 인문학자들은 추축(軸軸) 시대에 인간 이 동물과 다르다는 것을 주창하며 활동했던 선현(先賢)들의 역할을 이 시대에 담당해야 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84>,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와 같은 공상과학 소설을 읽어 왔고, 최근 영화나 TV에서 등장하는 공상과학적 작 품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며 그로 인 해 발생할 비극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는 AI는 그 훌륭한 기능과 함께, 인간성을 말살 하고 동물적 본능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이용 되는 부작용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려면 개발자가 인문학적 소양을 갖 추고, 그 부작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문학 경시가 가져오는 사회적 부 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인문학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부각해야 합니다. 이것 이 인문학자의 사회 지도 역할입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인문학은 자연과학뿐 만 아니라 사회과학까지도 지도적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황제가 절대적



인 권력을 가진 시대였기 때문에, 황제 한 명 을 섬독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인문학의 역 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자연과학과 사회 과학이 과거의 황제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정치, 언론, 경제 등의 지도자 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인문학이 그 들이 지도받고 싶어 할 정도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문학자들이 짊어진 어려 운 과제입니다. <끝>

추밀공파 35세 권동목 종친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장 취임

경산시종친회 권동목(추밀공파 35 세)은 3월 14일 아트라운 2층 홀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경 산시지부장으로 당선되어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경산시지부장 취임식에는 윤 회관 경산시 부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경산시의회 시의원, 관련 공무원과 외 식업소 대표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권동목 신임 지부장을 축하하고 격려 했다.

경산시에는 4,000여 곳의 외식업소 가 있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영세

업소가 참여하지 않아 3,000여 업소가 지부 회원으로 참여하여 경기 불황 극 복을 위해 서로 협력하며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권동목 신임 지부장은 “경산의 3,000여 회원업소가 돈독한 연대감으 로 외식업이 활성화되고 상생할 수 있 도록 친절과 봉사로 침체된 외식과 단 체 회식 분위기를 살려내고, 3,000여 외식 업소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으로 업소의 권의 신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산 권성욱 시니어 기자



2025 을사년 춘계 제례위원 회의 및 제례위원장 선출

안동권씨대종회 제례위원회(위원장 권정창)가 주최하는 “2025 을 사년 춘계 제례위원회 회의”가 3월 18일 오전 11시 안동시 안기전로 (태화동) 권씨회관 3층 대종회 사무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오는 4월 5일 오전 시조 및 아시조 춘향제를 봉행함에 따라 제반사항 을 토의하기 위해 모였다. 참석한 위원들은 권정창 제례위원장을 비 롯하여 권경웅 부위원장, 권혁창, 권용주 위원 등 모두 10명이 참석 하였다.

권오의 제례위원회 간사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시조묘소 망배, 상음례, 화장인사 순으로 이어졌다. 권정창 위원장은 인사말에 서 “오늘 눈이 내리는 가운데 제례위원들이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하고 “매년 실시하는 시조 및 아시조의 춘향제이지만 확실하게 다짐하는 의미에서 회의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자 리에서 신임 위원인 권혁웅(경주), 권오직(안동), 권석순(안동) 등 3 명이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였다.

회의에서 작년 시조 및 아시조 양소(兩所)의 분정(分定)을 종이 한 장에 집필(執筆) 함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자 올 춘향제부터는 시조 및 아시조를 분리해서 분정을 두 장에 집필하기로 했다. 또 양 소의 재유사(齎有司) 8명은 시조 및 아시조의 업무 분량을 4명씩 파 로따로 처리했으나 올 춘향제부터는 양소의 업무 분량을 같이 처리 하며 명칭도 ‘능동재유사’로 하고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권오의 대종회 사무국장은 “공사 중인 추원루를 올 봄부터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설계변경을 하는 바람에 내년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시조 및 아시조의 제례를 맡아오던 권정 창 위원장과 권경웅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위원장 및 부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였다.

위원장 권혁창(대구), 부위원장 권용주(안동)를 선출하고 위원은 권순박(예천, 유입), 권혁웅(경주, 신임), 권오식(안동, 유입), 권오직 (안동, 신임), 권석순(안동, 신임) 등 5명, 간사에 권오익(안동, 유입)을 선임하고 나머지 3명의 위원은 차후 선임하기로 했다. 임원개선 이외 에도 춘향제 예산, 제수준비, 재산관리 등에 관하여 토의하기도 했다.

회의가 끝나자 회원들은 권씨회관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양반밥 상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